

전북노조·시설관리공단노조, 수해 현장복구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북공노)과 전주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은 2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완주군 화산면 소재 농가를 찾아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섰다.



이날 일손 돕기에는 송상재 전공특노 위원장, 박종철 공단노조 위원장 등 조합원 30여명이 참여해 배수로 정비작업을 했다. 이번 수해 피해 지원 활동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빠른 일상복구를 위해 전북노조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노조 조합원 30여명이 동참해 농가 주변 환경정비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완주군 화산면 농가주들은 "집중호우로 많은 일손이 필요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전북특별자치도노조와 전주시시설관리공단노조 조합원이 함께 적기에 인력을 지원해 줘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 활동에 함께한 전주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박종철 위원장은 "큰 피해를 당한 농업인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여 설 수 있게 조금이나마 위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포암농원·미태리 남원도통점, 자활사업 인정받아

남원시는 올해 자활사업단으로 운영하던 포암농원, 미태리 남원도통점이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아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다. 자활기업은 자활사업단 참여를 통해 기술과 경험, 확고한 자립 의지를 가진 참여자 2인 이상이 창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의 안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지자체 및 관할 광역 자활센터의 검토를 거쳐 자활기업으로 최종 인정받을 수 있다. 포암농원은 2020년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비육돈 위탁 사육 등 자활사업단으로 시작하여 올해 3월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였으며, 미태리 남원도통점은 2022년 파스타 전문점인 자활사업단으로 시작해 7월에 자활기업으로 창업에 성공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 신대인농협, 찾아가는 신규조합원 교육

정읍 신대인농협(조합장 황희준)은 최근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신규조합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규조합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농협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세종교육원(농협생명) 박종열 교수가 '농협의 정체성 강화 및 농협 조합원의 역할과 자세'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박종열 교수는 신대인농협의 단풍고춧가루 유튜브채널을 조합원에게 소개하며 "신대인농협의 대표 상품인 단풍고춧가루를 구매하는 것뿐 아니라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신대인농협을 홍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양천욱·정영희 부부, 진안장학재단에 장학금 전달

진안군 부귀면 주민 양천욱·정영희 부부는 23일 진안군을 방문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준성)에 장학금 300만 원을 기부했다. 양천욱·정영희 부부는 전라고등학교와 전주여자고등학교에서 각각 퇴직된 교사 출신으로 현재 부귀면 중풍마을에 귀촌해 생활 중이다. 이들 부부는 인재 양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진안=유태만 기자

전통문화예술품협회 정기회·경매행사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기간인 10월 21-26일 고미술품 전시회 개최 결의

(사) 전통문화예술품협회(회장 박운열)는 한국고미술협회 전북지회(지회장 이정우)의 후원으로 23일 오전 오산면 소재 지평선 경매장에서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매행사를 열고 오는 '2024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시 전통문화예술품 전시회 개최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모두는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소리문화의 전당 1층 갤러리 S 메인 전시실에서 우리 고미술품 소장 전시회를 열어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한인 비즈니스 행사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우리 선조들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행사를 열기로 결의했다. (사) 전통문화예술품협회는 2014년부터 전북지역에서 문화예술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다가 2017년 사단법인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다. 이 단체는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사회변화의 무분별한 외래문화 수용과 경제생활 수준 향상으로 우리 전통문화예술이 쇠락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를 보존하는데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모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사항은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12회와 13

회 전북 발효식품 엑스포 전시장에서 9개 부스를 고미술품 전시장으로 활용한 전시회를 열어 참여 관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어 대회 조직위원장으로 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2016년에는 정음 김동수 생가 축제 행사에 참여하여 고미술품 전시회 개최로 도민들에게 고미술품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렸다. 2018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23년 5월 1일부터 12일 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전시실에서 전북의 오래된 고미술품을 전시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만호 기자

전북은행, 다문화 아동 여름방학 캠프 후원금 1억원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23일 전주 시청에서 전주시 다문화 아동을 위한 도내 최대 규모의 여름방학 캠프 지원 후원금 1억 원 전달식을 가졌다. 전북은행은 여름방학 기간 중 자치 소외될 수 있는 다문화 아동들을 대상으로 JB플랫폼 금융교육, 진로적성탐색,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작년보다 약 2배 이상 규모를 키워 올해 사업을 마련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주시 우범기 시장, 굿네이버스 김경환 전북지역본부장,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 오현권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전주시와 협력해 다문화 초등학생 35명, 중학생 35명 총 7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후원금은 7월 말 정음에 소재한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굿네이버스 전북 지역본부와 함께 초등 2학 3일, 중등 3학 4일간의 일정으로 여름방학 캠프를 각각 실시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시 미래성장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다문화 아동들이 방학을 맞아 견문을 넓히고,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심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전주시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백종일 은행장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도 성장하기에 이번 지원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법무보호공단 전북,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23일 해당(대표 최평욱)을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6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지부협의회(회장 한명옥)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은 지역사회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눔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최평욱 대표는 교육지원위원회(회장 이영식) 고문으로 활동 중이며, 기술교육원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황경주 지부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동참해 주신 최평욱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대



전북 녹두패 학생들, 진안 정천서 의료봉사 펼쳐

전북이 고향인 경희대 한의과 학생들로 구성된 전북 녹두패 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진안군 정천면 어르신들에게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 22일~25일까지 나흘간 정천면 행정복지센터 2층 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봉사는 경희대 한의과 장우창 교수를 비롯해 12명의 경희대 한의과 학생들이 나서 침, 뜸 등 한방진료를 시행한다. 참가 학생들은 한약부터 재료까지 진료를 위한 물품을 직접 가져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진료를 하기 위해 진료 시간이 끝날 때까지 정성으로 진료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진료를 받은 한 주민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이런 귀한 분들이 정천까지 와서서 너무 감사하다"고 "가신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아쉽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만호 기자



완주9경 등 완주군에 수해 복구 위한 온정 전달

지난 22일 완주9경(대표 소덕인), 완주풍류학교(대표 김종덕), 완주소북학교(대표 소병진)가 각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성금을 완주군 저소득층 및 수해 피해민을 위해 전달했다. 완주9경은 완주를 사랑하는 주민들이 모여 완주군의 발전 방안을 도모하고 완주군의 지역의 어려움을 살펴보는 완주군민들의 모임이다. 완주풍류학교는 소양면 오성향옥마을 일원에 위치한 한옥 공연장으로 풍류를 매개로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하며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및 상설공연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완주소북학교는 소병진 명장(국가무형문화재 소북장 보유자)이 운영 중인 학교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나무를 깎아서 못과 접착제 없이 아귀를 맞춰 조립하는 기술을 교육하는 등 짜맞춤 소북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남원 자원봉사센터서 '볼런투어' 진행

남원시는 지난 7월 20일, "볼런투어"라는 주제로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특별한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볼런투어란, 자원봉사(volunteer)와 지역탐방(tour)을 융합한 자원봉사자들에게 활력을 제공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원봉사 활성화 증진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볼런투어는 한국기술봉사관학교 학생회와 남원중학교 두빛나래 봉사단 등 도내 청소년 자원봉사자 20여명이 함께 참여하여 1부에서는 남원의 정신과 역사를 배우고, 2부에서는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의미있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 1부에서는 남원문화원 김주완 원장의 "옛 도시 남원의 얼(精神)과 몸심재"라는 주제 강의와 수지면 몸심재에서 남원 역사와 정신을 체험했으며, 2부에서는 직접 천연 모기퇴치제 40개를 제작해 증증장애인 거주시설 '어린 세상'에 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은장학재단, 중앙여고·완주고서 JB인문학 강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 후원으로 운영되는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전주 중앙여자고등학교와 완주고등학교에서 '2024 JB인문학 강좌'를 각각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문학 강좌에는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어 감도치사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의 재심을 맡아 무죄 판결을 받아 낸 박준영 변호사를 초청해 '부족함을 채워주는 민법에서 오는 대개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박준영 변호사는 본인의 화상시절 일화를 비롯해 그동안 다루었던 재심 사건들을 소개하며 강의를 이어갔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이 있지만 좌절하기보다는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며, "우리는 우리가 지지는 죄보다 더 나은 사람이며, 하나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사람이거나 상황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김제 슈퍼와, 저소득가정에 라면 1000박스 기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유)슈퍼와(대표 강신태)가 23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해 달라라 라면 20개입 1,000box(1,5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유)슈퍼와는 김제시 서암동 학교길 199에 위치해 있으며, 야채·정육·수산물·공산품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강신태 대표는 "물가상승 등으로 경기가 어려워져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라면을 기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박노태 기자

헤리스 자사 화장품 브랜드, 바디미스트 기부

코스메틱 전문브랜드 MELIKE(미라이크)가 지난 22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2천만원 상당의 바디미스트를 군산시에 기탁했다. 헤리스는 2016년 설립 이후 LED 마스크, 갈바니 휴머니티 등을 판매하고 자사 화장품 브랜드인 미라이크(MELIKE)는 자연 유래 성분과 비건 인증한 제품으로 올리브영, 인천공향 면세점 및 여러 온라인 등에서 꾸준히 인기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기부된 바디미스트 역시 비건 인증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이상은 미라이크 대표이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사회복합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하게 되었다"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